

임실 영경귀 미래 농업 비전 각광

농진청 인삼특작부 연구소, 지역특화작목 육성 집중

한국 영경귀는 민간 전통약으로 예전부터 널리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어혈을 풀어 주는 효과로서 피를 맑게 하고 고지혈증개선과 혈행개선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매우 소중한 토종 약용식물이다.

이러한 영경귀를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여 임실군의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임실영경귀가 과학적인 연구로 우수한 효과 효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임실생약(대표 심재석)은 임실지역에 대규모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양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임실영경귀의 효과 효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에도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억제효과, 간성상세포 억제효과, 고지혈증 개선효과, 혈행개선 효과,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등 전통적인

민간의약으로 이어온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혀낸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서 임실영경귀를 소재로 가능성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연구 일환으로 여성 갱년기 건강 기능식품 인체작용 임상연구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그린 사업 과제에 임실생약에서 협동과제로 참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퇴행성 관절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절 연골 손상 억제와 관절 뼈를 보호하는 우수한 효과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임실생약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하여 농촌진흥청 특허(신유수 박사: 알콜성 간손상 보호효과, 관절염 보호 효과 등) 기술을 이전 받아서 한국 영경귀 보건원을 개발하였으며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 론칭과 왕홍 마케팅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인터넷 방송으로 임실영경귀를 홍보하는 등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한국영경귀는 아직도 품종 표준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라북도 약용자원 연구소와 임실생약 영농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경귀 품종육성 연구와 우수품종 선별육종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약용자원연구소 김장수, 김효진 연구사는 향후 3~4년 후쯤에는 한국 표준품종과 우수한 임실영경귀 품종이 육성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와 전북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연구가 임실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국화꽃 생산 심혈

심 민 군수, 농기센터 시험포장 등 3곳 현장행정

임실N치즈축제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드넓은 축제 행사를 장식할 국화꽃 재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에 국화꽃을 전시하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심 민 군수는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될 축제의 성공을 위해 국화꽃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심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등 축제 행사장에 전시할 국화 생산자인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등 3곳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임실N치즈축제는 심 군수가 민선 6기 군수로 당선된 이후 임실치즈테마파크 정상화와 임실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축제다. 당시 심

군수는 소규모 지역축제가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에서 군을 대표할 축제 육성과 2011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자 임실치즈테마파크 활성화를 목표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인접 치즈마을을 주 무대로 한 축제를 만들었다.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치즈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선호하는 계절꽃 국화를 도입, 2015년에 첫 선을 보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급성장했다. 여기에는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이 효자역할을 토티했다. 치즈와 함께 국화꽃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40여만명 안팎이 찾는 유명해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군은 축제장을 장식할 국화화본 2만5000여개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을 통해 재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21일 심 민 군수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등 3곳에서 현장행정을 펼쳤다.

남원시, 공직문화 변화 다양한 노력 시도

적극행정 위해 인사혁신처 이형복 감사 교육

남원시가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이형복 감사를 초빙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러한 교육과 함께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인 인센티브와 면책제도,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과 지원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

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영근 기획실장은 "이제 과거와 같은 소극적 행정으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이 되고 있다."며 교육의 취지와 적극행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원시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다양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점은 상명하달의 방식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부터 개선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상향식으로 해결해 가는 방식을 지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9월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을 주제로 남원시 공무원 100여명이 행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견고추 대형마트 최초 납품

홈플러스·롯데마트 입점 확정

시장가격이 작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견고추 판매 확대를 위해 순창군과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이 발 벗고 나섰다.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유광희)이 지난 14일부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순창 견고추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납품은 4억7000만원(4만 근) 규모로, 올해 처음으로 견고추를

대형마트에 입점한 첫 사례로 꼽힌다. 전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매장에 납품될 예정인 가운데 홈플러스 3만 5000근, 롯데마트 5000근을 한 달간 판매한다.

그 동안 순창 견고추는 계약재배를 통해 관내 장류업체들에 납품하는 계약물량 이외에는 농가 개인판매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순창 견고추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순창군내 3개 농협(구립농협, 동계농협, 서순창농협)도 이에 발맞추어 농협별로 견고추 수매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립농협을 시작으로 농협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수매가격은 초반 9000원을 시작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수매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추 품종개발 및 고추 생산·유통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송동면, 민민의 장 수상자 선정

구자일·김한권·서안순·양총모 씨... 31일 시상

남원시 송동면은 민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선재)를 열고 4개 부문 4명의 민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 오는 31일 제16회 송동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면 각 기관단체 및 마을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산업군로장에 구자일씨(72세), 공익장에 김한권씨(74), 효열장에 서안순씨(75세), 애향장에 양총모씨(56세)가 선정되었다.

산업군로장 구자일 씨는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농촌지역의 낙농업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는 등을 통

해나눔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익장 김한권씨는 2009년부터 송동면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민민 화합과 주민속원사업 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다 해 왔다.

효열장 서안순씨는 병상에서 의식없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와중에도 마을 각종, 대소사 시 내일처럼 앞장서 활동해 칭찬이 자자하며, 애향장 양총모씨는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항상 고향발전에 불심양면으로 노력해 출향인과 지역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섬진강에 붓어 치어 5만마리 방류

순창군이 지난날 쏘가리 치어 방류에 이어 지난 20일 적성면 섬진강변에 붓어 치어 5만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적성면 마실펜션 앞 섬진강변에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붓어 치어 방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류한 붓어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관리 중인 붓어 어미로부터 산란기에 수정란을 확보해 체계적인 사육관리를 통해 4cm 이상까지 성장시킨 우량종 붓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장구목 일원에 붓어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내수면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은 "섬진강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류행사는 서식환경 변화로 사라져가는 붓어 서식지 복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학교주변 판매업소 위생 점검

임실군, 오늘부터 30일까지

임실군은 초등학교 가을학기 개학에 맞춰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중심으로 점검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학교 주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 여부, 조리된 음식의 보관 및 위생상태 적정 유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압류·수거하여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의료지원과 이준백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